

**2017년도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추진
제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결과 알림**

【 2017. 4. 14.(금)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서기 조미영 】

□ 개 요

- 일시/장소 : 2017. 4. 11.(화) 13:30~15:30 / 대회의실(3층)
- 참석자 : 영향예보 TFT 및 부산(청) 관심 직원 등 19명
- 강 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동현 연구사
- 주 제 :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영향 및 피해'
- ※ 참석자는 상시학습 2시간 인정

□ 주요 토의 내용

- (김준형 주무관)폭염 영향예보 제공을 위한 위험수준 산출 시에 가축 종별로 구분해야 하나?
⇒ 종별로 위험수준의 차이가 있음.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젖소와 폐사율이 높은 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함
- (고수완 사무관)THI 지수는 온도, 습도만 활용됨. 풍속이 고려된다면 더 효과적인 지수가 되지 않나?
⇒ 풍속은 밀폐형 축사에서 중요함. 바람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나, 관련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김준형 주무관)THI 지수에 따른 위험수준 외에 축산농가의 대응 매뉴얼도 있나?
⇒ 고온에 따른 축사 사양관리나 가이드라인이 있음
- (김태희 주무관)축사 외부온도와 내부온도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 데이터 있나? 폭염 영향예보 제공 시

- 1 -

- 외부온도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축산농가에서 축사 내부 환경을 대비할 수 있나?
⇒ 환기방식, 시설장비 등 내부 환경은 축사마다 차이가 커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폭염 영향예보가 축산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예보과장)가축의 고온스트레스와 상대습도는 상관성 없나? 기온, THI 등 다양한 기준 중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제공 시 어떤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 다수의 해외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습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됨. 사람은 땀을 흘리지만 가축은 그러한 기능이 퇴화되어 습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됨. 온도를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예보과장)폭염연속발생일수나 열대야도 가축의 고온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나?
⇒ 8주간 지속적으로 고온에 돼지를 노출시켰을 때 정액량 감소와 같은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폭염연속발생일수도 영향을 줌. 열대야 역시 소의 경우,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함
- (김준형 주무관)연구 수행 중 축산농가를 방문하였을 때 수렴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 폭염 시 축사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에서 단기예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나? 예보에 따른 warning 기능은 있나?
⇒ RC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100년까지의 THI를 가시화한 것으로 현재 단기예보를 적용한 결과는 지원되지 않음. warning 기능도 현재는 없으나 축산농가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정보가 SMS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음

- 2 -

□ 관련 사진



□ 참석자 서명

부산지방기상청			
2017년도 맞춤형 영항예보 연구개발과제 추진 제1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17. 4. 11(화) 13:30~15:30 / 부산지방기상청 대회의실 】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1	부산지방기상청	청장	김보숙
2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과장	최주권
3		기상사무관	고수환
4		기상주사	박소연
5		기상주사	이종규
6		기상주사보	김태희
7		기상주사보	김준형
8		기상주사보	전길숙
9		기상주사보	이윤교
10		기상주사보	박종혁
11		기상서기	조덕영
12		기상서기	이경희
13		기상서기	김용정
14		기상서기	홍지혜
15		기상서기보	성지연
16		기상서기보	박혜나
17		연구원	장은세
18		연구원	김진아
19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책임자	박영민
20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영희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